

한국에서 보기 힘든 '이'를 만나다

영국에서 생긴 일

이창곤 | 한겨레 사회부 기자

어린 시절 우리를 괴롭히던 '이'. 한국에서는 사라진 '이'를 35여년 만에 영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의료제도에 있어서 선진국인 영국의 보건제도를 배우러 온 필자에게 '이' 출현은 당혹스럽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영국 의사는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답했다.

굵적 굵적이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우리들의 몸에는 늘 이가 득 실됐다. 일년에 한 두 번 연중행사로 목욕 하던 시절의 일이니 오죽했으랴? 머리카락 은 물론 등과 가슴 온 몸 구석구석마다 이 들이 서식했다.

그 시절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밤만 되면 잠을 설쳐가며 여기저기 긁어대기 일 수였고, 온 가족들이 솥재 옷통을 벗어 던 진 채 한 방에 둘러앉아 이를 잡기도 했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풍경 하나. 할 머니가 빗살이 가늘고 촘촘한 참빗을 꺼내 들고 당신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쓸어 내리면, 우수수 진눈깨비 내리듯 깨알 같이 작은 놈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곁에 앉아 있던 예닐곱 나이의 나는 무슨 경기라도 벌 이듯 놈들이 미처 달아나기 전에 쏜살같이

손톱으로 눌러 죽였다.

놈들을 한 놈 한 놈 죽일 때마다 '톡톡 톱' 소리가 났고, 나는 이 소리를 들으며 이 잡기 놀이를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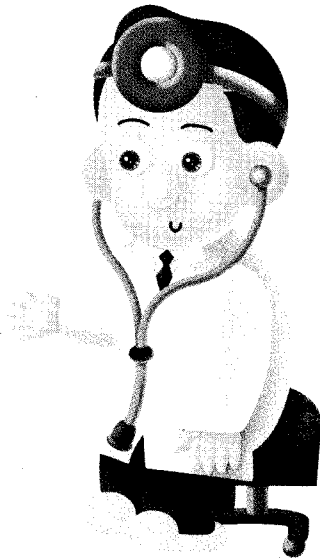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난 이를 보지 못했다. 아마 도시에 거주 하는 요즘 아이들 중 이를 보지 못한 아이 들도 많으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

그 '이'를 이른바 선진국 영국에서 거의 35여년 만에 다시 볼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지난 2월 초순, 3살 난 막내 딸이 자꾸 머리를 긁어댔다. 비듬 때문인가 싶어 아 이의 머리를 자주 감아주었지만 녀석은 그 이후에도 머리를 계속 긁어대는 게 아닌가.

아내는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듯하 다며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낮



선 이국에서 아이들이 아프면 큰 일이었다.

서둘러 병원 예약을 해야겠다고 맘먹던 차에 마침 그날 버밍엄(영국 제2의 도시로 필자는 이 곳에서 연수명목으로 5개월째 체류중이다) 대학교의 한 신학대학에서 한국인의 밤행사가 열려 참석했는데, 아내와 절친하게 지내던 한 교수가 아이의 증세를 듣고서는 ‘이’가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이었다.

우리보다 한해 먼저 이 곳에 온 그녀는 여기 학교나 유치원에서 집으로 보내는 통신문 중에는 ‘가끔 몇몇 아이에게 이가 발견됐으니 조심하거나 살펴보라’는 내용이 있다며, “아마,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한테서 옮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서둘러 약국을 찾았다. 약국에는 ‘이’를 퇴치하는 특수 로션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었다.

약봉지안에는 조잡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이 하나 들어 있었다. 집에 와 그걸로 딸의 머리를 빗기니 종류는 다르지만 꼬물꼬물 기어 다니는 이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아내는 혹시나 해 딸과 함께 한 방에서 자는 아들(10살)의 머리를 빗겨 보니 이번에는 무수한 서캐(이의 알)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아닌가.

급기야 아내는 13살 동갑내기인 두 조카와 나까지 온 가족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이’가 나타났다.

마침, 조카가 아파 병원에 들른 차에 담당 의사에게 “어떻게 영국에 이가 이렇게 많으며, 원인이 뭐냐. 더러워 그런 게 아니냐”고 따지듯 물으니 이 여의사는 “여긴 ‘이’가 흔히 있으며, 원인은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별일 아니니 걱정 말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면서 답했다.